

광주음악창작소, 음악 콘텐츠 메카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공연·음반제작지원사업 결과 발표 팝·클래식 등 20개 팀 선발...지역 음악축제·연습실 등 지원

광주 뮤지션 '앙리머스', 관객의 사연을 읽어주며 그에 어울리는 곡으로 무대를 꾸미는 '원보물' 등은 모두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광주음악창작소 사업을 통해 이름을 알린 그룹이다. 광주음악창작소는 올해도 공연·음반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음악가들을 발굴, 공연과 음반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 음악 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원장 박용석) 광주음악창작소가 광주음악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연 20개, 음반 22개 등 43개 팀이 지원했으며 팝, 재즈, 락, 국악, 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의 51개 팀이 참여했고, '818', 'The Plastic Kiz', '셔츠보이프렌드', 'COSMOS', '페이크 유니버스' 등이 선발됐다.

2018년 공연·음반 제작지원 사업 선정 뮤지션인



이진우 앨범사진

다이어라잇은 스페인의 음악축제 프리마베라사운드에 참가했고 '어니'는 '네이버뮤직-이주의 발견'에 선정되기도 했다.

공연제작 지원 프로그램은 10년 넘게 진행해온 광주의 브랜드공연 '포에스케이'를 이어갔고 흥대거리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광주출신 싱어송라이터 최은은은 단독콘서트를 여는 등 다채로운 공연 콘텐츠를 제공해 광주음악의 저력을 보여줬다.

또 음반제작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의 선배 뮤지션인 박문옥의 트리뷰트 앨범, 박종화 30주년 기념앨범, 사직통기타거리의 테마앨범, 인디뮤지션들의 음반 등을 발매하며 지역 음악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편, 광주음악창작소는 2015 8월 공식 개관 후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음악-창제작시설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음악창작소 사업을 비롯해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사업 등을 통해 더 안정적인 지원과 실험적인 음악 콘텐츠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공연·음반 제작지원 사업 선정 뮤지션인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앙리머스

백화점 한 가운데, 보고 듣고 느끼는 '사유의 정원'

광주신세계갤러리 7월 14일까지 박상화 작가 초대전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 한 복판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원'이 생겼다. 비록 갤러리는 공간 안에 디지털 영상이 만들어진 가상의 장소이지만 하지만 철썩이는 파도 소리와 새 소리에 귀를 맡기고, 흠날리는 꽃잎과 떨어지는 낙엽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위로가 전해진다. 전시장 바닥에 놓인 빈백에 앉아 편안히 감상해도 좋고, 정원을 유유자적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며 감상해도 좋다.



미디어 아티스트 박상화 작가 개인전이 오는 7월14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영상미디어 설치작품을 통해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상화 작가 초대전이 오는 7월 14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유의 숲'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의 풍경을 디지털 영상·설치 작품으로 표현한 '사유의 정원', '무등도원경' 시리즈 5점을 선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작품은 갤러리 내부 전 공간을 활용한 '사유의 정원'이다. 하늘거리는 메시 스크린을 이용해 숲의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으로 박 작가는 제한된 시각 프레임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직접 디지털 가상의 숲에 들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미로처럼 설치된 얇은 천이 스크린 역할을 하며 다양한 영상을 담아내는 작품은 우리 일상의 반복처럼 느

끼지는 썰물과 밀물의 움직임, 도시의 화려한 풍경, 평화로운 소나무 숲 등이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한다.

갤러리 소인도우를 활용해 전시한 또 다른 영상 작품 '무등판타지아-무등도원경유람'과 '무등도원경-사계' 연작은 무등산 등 광주의 자연과 도시 문명, 별서정원과 아파트 등의 이미지들을 결합해 몽환적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플라스틱 나뭇잎으로 만든 프레임 속에서 만나는 영상은 사라지고,

나타남을 반복하며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낸다.

목포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미술학과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한 박 작가는 제1회 조선대학교미술관 올해의 작가상(2018), 하정용 청년작가상(2013)을 수상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작센터 Creators in Lab 프로그램(2017)에 참여했다. 관람 시간 월-목 오전 11시~오후 8시(금·일요일 오후 8시30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짜장면 배달원이 들려주는 80년 5월

판소리극 '방탄철가방' 7월 3~4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 철가방은 총알 받아내는 방탄 철가방 아니요, 이 철가방은 짜장면 나르는 배달 철가방이다. 나는 공수들과 싸우는 배달의 전사자 아니요, 뽕을 배를 채워주는 배달원 최배달이다." ('방탄철가방' 중)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판소리극 '방탄철가방-배달의 신이 된 사나이' (사진)를 무대에 올린다. 7월 3일 오후 8시, 4일 오후 3~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공연은 올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됐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년 올해의 레퍼토리 전통예술부문에 선정됐다.

작품은 주인공 배달의 신, 최배달이 들려주는 5·18 광주소식 판소리 1인극으로 1980년 5월 18일 광주진중항쟁이 일어난 시기에 광주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역사의 급류에 휩쓸린 힘없는 개인들의 일상과 사랑, 꿈,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2014년에 창작 초연된 이후, 제2회 창작국악대상 남작 장우상을 수상했고 2014년 초연 시 국립극장 매진을 기록했으며 최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 '오늘 그날이 오면'의 연계 공연으로 네이버TV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소리꾼 최용석(판소리공정 박대소리 전 대표, 조선 후기 명장 김세종의 '춘



향가' 이수자)는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판소리 음악어법을 지닌 소리꾼이다. 최 씨는 2019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작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해녀탐정 흥실록, 일곱빛깔 까마귀 등의극본을 쓰며 극작가로도 인정받았다. 전석 3만원(광주시민 40% 할인),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장애인 작가들의 '빛 금간 시간'

광주시지체장애인서구지회, 7월 7일까지 관선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지체장애인서구지회(지회장 전자광)가 회원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를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광주 예술의거리 갤러리 관선재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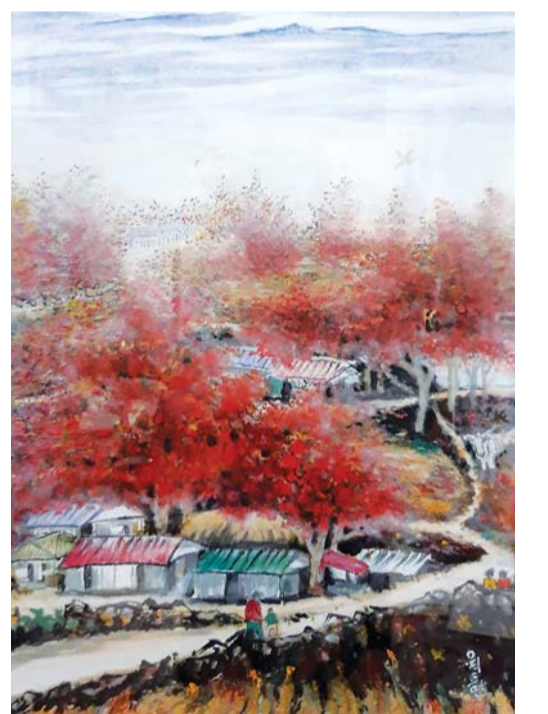
'빛 금간 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유대환·최상현 작가 등이 작품을 선보인다.

7월2일 오후 4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장애인 시낭송가 이빛나니의 시낭송과 청각 장애인 이봉화 작가의 대(大) 붓글씨 시연이 열리며 서대석 서구청장과 양향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는다.

또 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하는 가훈 써주기 캘리그래피 행사도 진행한다.

광주시지체장애인서구지회는 1만4000여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예술 분야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최상현 작 '향수'

"미혼모 자립·건강한 양육 돕는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7월 12일까지 접수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가 '양육미혼모 자조모임'을 실시한다. 이 모임은 미혼모의 자립의지 강화와 건강한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2020 가족 소통·참여 사업'의 후원을 받아 기획됐다.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위한 체험활동,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활동, 자기개발 교육(창업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혼모들이 팀을 이루어 계획하고 실행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양육미혼모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팀에게는 자조모임 활동(소정의 활동비 제공)과 교육(임파워

리더교육, 부모교육)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엄마와 아이에게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3개 권역(영남권, 충청권, 전라권)에 거주하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로 팀(3~5명)을 이루어 신청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7월 12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팀(권역별 7팀)은 7월 17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임파워리더교육을 시작으로 4개월 간(8~11월) 자조모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문의 062-670-401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